

해양수산부, 폭염에 따른 어업인 온열질환 특별관리 지원

- 어업인 온열질환 발생 예방 홍보, 질환 발생 시 비대면 진료, 응급이송 지원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 예방 등 여름철 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‘어(촌)복(지)버스 사업’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(7월 14일~8월 29일)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
* 2025. 3~12월 / 전국 섬·어촌 어업인 대상 / 의료(비대면, 대면), 생활(이미용, 목욕), 행정(노무, 세무)서비스 제공 / 해양수산부, 대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, 한국어촌어항공단, 부산항만공사 등 참여

이번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 운영은 ‘폭염 속 국민 건강·재산 지키도록 각 부처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하라’는 대통령 지시(7월 10일)에 따른 긴급조치이다.

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복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에는 특히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 등 의료부문 역량을 집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
해양수산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▲폭염 대응 요령을 스마트폰, 홈페이지,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▲방문 시 냉각조끼 등 보냉장구를 어업인에게 보급한다. 두통·어지러움·구토 등 의심 질환이 발생하면 ▲상시 비대면 진료 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▲방문 진료도 지원하고 ▲의식이 없는 등 고위험 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협력하여 섬·어촌에서 응급의료센터 등 병원 응급이송을 지원한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우리 어업인들이 생업을 위해 바다, 갯벌 등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한다면 위급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, 1인 조업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”면서 “어업인들은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및 시원한 장소 휴식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질환 발생 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반드시 받아 안전조치를 취하기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수산정책관 소득복지과	책임자	과 장	정준호 (044-200-5460)
		담당자	사무관	홍길수 (044-200-5461)